

금융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혁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금융 클라우드가 핀테크 금융·IT혁신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코스콤은 오는 26일(수)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의 온라인 전시관 및 세미나에 참여해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우수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이다.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코스콤이 서비스 운영을 맡아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 론칭·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

팅, 구축 및 보안 컨설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번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발표에서는 동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함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금융 특화 솔루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발표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한다.

자산관리, 대출, 인슈어테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금융 클라우드가 핀테크 금융·IT혁신 과정에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기획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다. 올해 3회 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핀테크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5월 26일(수)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 초청된 소수 인원만 참석 가능하나,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